문화재소식

청곡사 '제석천대범천의상' 보물지정

문체부는 지난 5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선전기시대 백자발(白磁鉢: 백자대접) 4점을 국보 제286호로 지정하고 진주 청곡사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帝釋天大梵天倚像)을 보물 제1232호로 지정하는 등 국보 1점과 보물 7점을 새로 지정했다.

청곡사의 제석·대범상은 회화상이 아닌 조각상으로 현존 국내 유일의 자료이다. 손의 모습(手印)등 입체감과 함께 옷의 문양에서 불화와는 다른 양식을 취하고 있어 18세기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불교의 대표적인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 사천왕상이 위엄을 나타내는 형상인데 비해 이 상은 보살상에 가까운 자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손을 합장하고 얼굴에 흰 호분을 칠한 모습으로 불화에서 자주 그려졌다.

◇보물 제1232호 진주 청곡사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

도선국사 탑비복원등 '옥룡사터' 성역화

통일신라말 도선국사(827~989)가 36년간 입산수도 했던 백계산 옥룡사(玉龍寺)터가 광양시에 의해 성역화된다.

광양시는 지난 5월까지 순천대박물관에 의뢰, 옥룡사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는 5억2천여만원을 들여 옥룡사지 일대 사찰부지 2천여평을 매입, 1910년 화손돼 자취를 감춘 도선스님의 탑비를 복원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옥룡사터 복원사업을 동국대나 불교계와 협의해 추진한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12호인 옥룡사 주변 5만여평의 동백림을 연차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고미술품 평가 '동산문화재진흥원' 가동

불교미술품을 포함한 고미술품(古美術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신력있는 민간단체가 결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9일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동산문화재진흥원 임종기원장은 최근 동산문화재 평가사업과 관련 진흥원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동산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진정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민간단체가 없어 유통 및 감정평가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며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감정평가를 고미술품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문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진흥원의 부원장은 김삼봉씨(前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이사는 신찬균 세계일보논설위원겸 문화재위원, 심영환 서울신문논설고문, 신우식 한국언론연구원이사장 등 7명이 맡고 있다.

◇아미타삼존불도를 응용한 대형드레스 '피안을 향하여'.

◇관음보살의 두상이 강조된 자켓 '기쁨'.

탱화속 불보살 '화려한 외출'

이기향씨 '불화이미지 의상전'…12~28일 가산화랑

탱화속의 불보살님들을 그려넣은 옷이 만들어졌다.

미술의상 연구가 이기향씨(인천대 강사)가 전통불화의 도상을 응용해 만든 여성의류 8점을 선보인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청담동 가산화랑(516-8888)에서 여는 '불화이미지 의상전'을 통해 소개될 이 의상들은 이씨가 지난 3월부터 만든 작품들이다.

미국과 독일등지에서 패션디자인을 공부한 이씨는 "한국에 돌아와 강단에 서면서 서양 의상에 불교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며 "처음엔 탱화를 옷에 옮겨도 될까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작품들을 만들면서 매우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기향씨

이씨가 이번에 선보일 8점의 작품들은 불보살님과 불교문양을 전통도상 그대로 옮겨 놓은게 특징이다. 아미타삼존불도를 기본으로 한 대형 드레스 '피안을 향하여' 관음보살의 두상을 큼직하게 배치한 바지와 자켓세트 '사랑' '기쁨' 지옥도를 드레스와 자켓의 앙상블로 표현한 '끝없는 길' 사천왕상을 드레스로 표현한 '욕심없는 기도' 등은 불화의 전통도상에 충실한 작품들.

또 돈황석굴의 비천상을 응용해 스커트와 케잎(망토)으로 조화시킨 '하늘나라'와 관음보살의 천수(千手)와 연꽃을 평면과 입체물로 구성한 '연꽃의 사연'은 불교문양의 의류응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양미술을 공부한 이씨는 이들 불화의 도상을 서양화법으로 받아들여 새롭게 해석했으며 의상들도 최대한 곡선미를 부각시킴으로 불교이미지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또 불화가 주는 강한 이미지를 의상이란 표현기법속에서 불교 고유의 온화함과 자비로 표현하기 위해 원색을 피하고 채도를 매우 낮춰 파스텔 톤으로 처리했다.

불교미술을 의상에 처음으로 응용한 이기향씨는 앞으로 사실적인 도상보다는 비구상 기법의 문양으로 불교를 담은 의상을 만들 계획이다.

"아직은 시도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첫선이란 입장에서 최대한 낯익은 무늬와 도상을 연출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전통불교문양과 불화를 과격적으로 해체시킨 독특한 디자인들을 의상에 담아 볼 생각입니다."

임연태 기자

불심시심 〈39〉

이 즐거움 아나

壬戌之秋秋七月 (임술지추추칠월) 임술년 가을 초가을 7월
蘇仙赤壁泛舟遊 (소선적벽범주유) 소동파의 신선 적벽강에 배 띄워 놀때
如今擧酒臨江口 (여금거주임강구) 지금에 잔 잡아 강어구 다다르니
此樂人間知也不 (차락인간지야부) 이 즐거움 세상사람 아는가 모르는가

위 시는 취미(翠微·1590~1668)대사가 동악 이안눌(東岳·李安訥·1571~1637)과 함께 뱃놀이를 하면서 화답한 시(敬次東岳李先生安訥泛江集赤壁賦字韻)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조의 사회는 극심한 배불(排佛)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이념이 계속된 조선조의 5백여 년을 지난 오늘의 불교가 어떻게 이렇듯 폭넓은 민중의 종교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회의 아닌 경이로움으로 회고될 때도 있다. 이러한 회의나 경외에 대한 대답은 당시 큰스님들이 큰 선비들과의 지기적 교분의 일면이 크게 작용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취미대사는 당시의 이름있는 선비 곧 고급관리와의 교분이 남달랐으니 그 이름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장유(張維)와 같은 이는 재상이면서도 대사를 청하여 결사(結社) 강론하려 하였지만 대사는 굳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재상의 힘으로 선사를 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산문을 지켜 도덕을 세우는 것이 낫다 하여 그랬으니 이에 장유는 대사를 더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대사의 이러한 사귐의 자세가 당시의 속사들과 격의없는 사귐을 유지하여 불도의 진작에 이바게 되었으니 위의 시에서 보이는 시의도 두 사람의 막힘없는 인간미를 엿볼 수가 있다. 소동파의 적벽강 놀이는 그 놀이 자체의 중요로움도 유명하겠지만 거기에서 쓴 적벽부가 만고의 절창이다. 이 놀이를 비긴 뱃놀이의 시로 승속을 뛰어넘었다.

一也詩成安也和 (일야시성안야화)
太一은 시 쓰고 安訥은 화답하니
上人江海共淸遊 (상인강해공청유)
스님과 함께 하는 강가의 맑은 놀이
擧杯爲問山間月 (거배위문산간월)
잔 들어 산간의 달에 묻기를
赤壁舟中有此不 (적벽주중유차부)
적벽강의 뱃놀이도 이 즐거움 있었나

太一은 취미대사의 자이다. 두 사람이 시로 벗이 되었음을 여실하게 보여 주면서 소동파의 놀이가 이만 했겠느냐의 질문을 던진다. 취미대사의 시는 여기에 대한 답시였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춤·노래로 만나는 '심청'

서울두레 개관 '여기 심청이 있다' 공연

심청의 이야기를 찡한 눈물과 요란한 웃음으로 질펀하게 풀어낸 '여기 심청이 있다'가 전통예술 전용극장 「서울두레」의 개관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여기 심청이 있다'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개의 공연물을 연속적으로 선보이는 시리즈로 공연된다. 지난 9일 공옥진씨의 1인 창무극 '심청전'으로 시작된 이번 공연은 지난 12일에는 박동실제의 소리를 물려받은 한애순씨가 3시간 동안 '심청가'를 완창,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오는 13일에는 한국 판소리계의 거봉 정광수 한승호 박동진옹이 한 무대에 출연, '심청가'를 통해 진짜배기 명인들의 걸쭉한 한마당을 선보인다. 15~17일에는 진도다시래기 기능보유자인 강준섭씨가 뺑덕어미와 심봉사에 초점을 둬 심청전을 재해석한 '뺑파막'을, 20일에는 동해안 별신굿의 명인 김석출씨가 '심청굿' 부분을, 22~24일에는 20여년전 해체된 여성농악단이 재결합해 '심청대목'을 선보인다.

◇'뺑파막'중 심봉사의 익살스런 모습.

전통자수 역사 '한 눈에'

'연화도'등 130작품 공예미술관 전시

우리나라 자수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렸다.

한국자수문화협의회 주최로 지난 5일 경복궁내 전통공예미술관에서 개막된 '한국자수의 아름다움전'은 명품전 재현전 창작전으로 나뉘어 우리나라 자수의 어제 오늘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의 하일라이트인 「재현전」에는 우리나라 자수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과거의 명품들을 국내 자수작가들이 직접 재현, 1백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출품작 안에는 연꽃으로 장식한 '연화도' 상상속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낙원도' '십장생도' '화조도'등 회화형식의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또 「명품전」에서는 1930년대 작품을 비롯해 20세기에 들어와 제작된 국내 대표작가의 명품 35점이 전시됐다.

이 전시는 내년 1월17일까지 계속된다.

재단법인 一念奬學會 설립안내

본회에서는 부처님의 정법과 이나라 불교중흥을 위하여 25년간 크고 작은 불사와 대중포교를 위하여 일념으로 걸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장학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학사업을 알립니다.

법인개요
■법인명칭 :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법인인가 : 사체 81721 — 906호
■허가일자 : 1995년 10월 30일
■대 표 자 : 양종윤(양선법장)
■이 사 : 조인숙 이영체 임금옥 최금순 양명선 이순덕 신수현 하정옥 구양회 김정순 김영자 이수진 김민자 백복자 박순옥 하수영 하정선 이말선 박성빈 구금숙 이외조 조호자 이순이 최정화 이정혜 (무순)

장학제정
재단법인 一念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불교의 선구적 역군이 될 수 있는 신심이 돈독한 젊은불자(승가·재가)를 발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사업을 제정.

— 다 음 —

1. 장학분야
가. 대학생(7명): ·불교학을 중심으로 선택한 자 ·인품과 성적이 모범이 되는 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년 1인, 1백만원
나. 고등학생(10명) 불교학생회에 참여하고 지도법사(교사)가 추천한 자—년 1인, 30만원
다. 장애인:불자장애인 고등학생, 혹은 장애인 단체에서 불교에 활약중인 개인 및 단체—200만원

2. 수여일자
•수여일자 : 1996년 1월 중순(별도 개별통지) 본회 설립기념 행사시
•접 수 처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접수일자 : 1995년 12월 20일까지
•문 의 처 : (051) 464-0561

1995년 11월 일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불기 2540년 丙子年 달력 16나한도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출판사에서는 불기 2540년(병자년) 16나한도 불교달력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 제작과정이 복잡하므로 미리 서신이나 FAX로 주문바랍니다.

감로기획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전화 : (02) 723-4306~7
팩스 : (02) 738-8682